

일연(1206~1289)과 이승휴(1224~1300)의 교유 인물과 현실인식 : 「普覺國師碑」의 受法乳卿士大夫를 중심으로*

김 성 환**

- 머리말
- 일연의 활동과 교유 인물
- 일연·이승휴의 네트워크와 현실인식
- 맺음말

I. 머리말

1258년(고종 45) 60년 최씨 정권의 종말부터 1274년(충렬왕 즉위) 원 부마 국으로 편입되기까지 20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고려 사회는 대내외에서 격랑을 겪었다. 명분에 지나지 않고 한계가 분명했지만,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몽골과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났고, 몽골의 지원으로 국왕권 강화가 추진되었으며, 유례가 없었던 국왕의 몽골 親朝와 개경으로 환도가 있었다. 특히 고려와 몽골의 최고 권력을 계승할 위치에 있던 고려 태자 王僎과 몽골 皇弟 쿠빌라이의 극적인 만남과 몽골 지원으로 이루어진 원종의 왕위 계승과 복위는 고려 사회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6522).

**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가 몽골(원)에 급속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뜻했다. 결과는 고려의 요청으로 고려 세자 王諱(후에 충렬왕)과 세조 쿠빌라이 딸인 제국대장공주의 혼인이 성사 되어 고려는 독립국이지만 원 부마국 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고려는 원 제국 征東의 병참기지가 되었고, 속국에 요구되던 6事로 대표되는 조건을 따라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고려는 쿠빌라이에게 요청해 승인받은 不改土風을 내세워 국체와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고, 그것은 이후 世祖舊制로 거론되며¹⁾ 원 간섭기에 고려를 존속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편찬은 當代史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²⁾ 특히 원의 역사편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던 현실에서 그 성격이 사대적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고려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춘 국가였고 그에 따른 자존의식도 담아야 했다. 고려로서는 원과 관계에서 불개토풍의 원칙을 역사편찬에도 적용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 역사편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대사의 경우에는 사서 명칭과 지극히 간략한 범위, 편찬자(찬자)에 대한 정보가 고작이다. 반면에 상고사를 포함한 通史의 결과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현전하여 이 시기의 사학사는 물론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연구 동향은 이 시기 역사편찬의 성격을 당대사 편찬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사서들의 대부분이 전해지지 못하다는 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 수준은 사서를 편찬

1) 이익주,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2) 박종기, 「이색의 당대사(當代史) 인식과 인간관—모지명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6(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7):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 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11): 「원 간섭기 金就礪像의 형성과 當代史 연구」 『한국사상사학』 4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2); 김성환,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편찬」 『동북아역사논총』 81(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13세기 말~14세기 중반 원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고려의 역사편찬」 『동북아역사논총』 86(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4(a)).

(찬술)한 인물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분석하거나,³⁾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조차도 각론으로 다루어져 원 간섭기 역사편찬의 동향이라는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원 간섭기 역사편찬의 전체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일연과 이승휴의 『삼국유사』와⁴⁾ 『제왕운기』를 당대사 측면에서 다루기

3) 고려 후기 사학사의 종합적인 검토로는 이원명,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에 關한 研究: 元 干涉期 歷史認識의 變化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55(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상현 외, 「역사학」 『신편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I): 고려시대편: 개정증보』, 제4장 고려조의 역사가와 역사서 중 3~6절(파주, 경인문화사, 2014) 참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제외한 각론으로는 변동명, 「鄭可臣과 閔漬의 史書編纂活動과 그 傾向」 『역사학보』 130(서울, 역사학회, 1991); 김성환, 「고려 후기 鄭可臣(1224~1298)의 『千秋金鏡錄』 찬술과 역사 논쟁」 『대동문화연구』 128(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4(b)); 민현구, 「閔漬와 李齊賢: 李齊賢 所撰 閔漬墓誌銘의 紹介 檢討를 중심으로」 『斗溪李丙叟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서울, 지식산업사, 1987); 「閔漬」 『한국사시민강좌』 19(서울, 일조각, 1996); 김성환, 「고려 후기 閔漬(1248~1326)의 역사 논쟁과 『世代編年節要』 편찬」 『한국사학보』 99(서울, 고려사학회, 2025(a)); 탁봉심, 「李齊賢의 歷史觀: 그의 『史贊』을 中心으로」 『이화사학연구』 17·18(서울, 이화사학연구소, 1998); 최봉준, 「李齊賢의 성리학적 역사관과 전통문화인식」 『韓國思想史學』 3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8); 한누리, 「이제현의 현실 인식 및 외교 논리 검토: 『익재난고』의 「사찬」과 상서(上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8(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22); 김남일, 「李穡의 歷史意識」 『淸溪史學』 11(성남, 청계사학회, 1994); 도현철, 「李穡의 性理學的 歷史觀과 公羊春秋論」 『역사학보』 185(서울, 역사학회, 2005); 마종락, 「牧隱 李穡의 生涯와 歷史意識」 『진단학보』 102(서울, 진단학회, 2006); 김성환, 「목은 이색(1328~1396)의 형제 문화론적 하이관과 삼한사(三韓史) 인식」 『동방학지』 201(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등 참조.

4) 『삼국유사』의 찬자에 대해서는 최남선 이후 일연으로 파악되었지만, 최근 일연 문도를 중심으로 한 복수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차광호, 「삼국유사에서의 신이(神異) 의미와 저술 주체」 『사학지』 37(용인, 단국사학회, 2005);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서울, 민족사, 2007). 또 諸編과 달리 王曆도 별개의 찬자라거나, 王曆·紀異·興法 이가 별개의 책이었다가 후에 합쳐졌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남동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9), 214쪽. 그러나 이 글은 『삼국유사』에서 왕력과 諸篇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찬술되었고, 찬술 주체로서 일연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에 앞서 교유 인물을 살펴 그들이 공유했던 현실 인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삼국유사』가 당시 불교계를 배경으로 찬술된 것은 당연하지만, 國尊 일연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공유되었던 현실 인식이 어떻게 역사 인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배경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우선 이 시기 역사편찬자를 포함한 관료들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보각국사비의 受法乳卿士大夫⁵⁾ 수록된 일연의 단월 중 불법을 받은 경사대부(受法乳卿士大夫)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그리고 『동안거사집』에서 확인되는 이승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과 관계에서 그들이 공유했던 현실 인식의 모습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 결과 원간섭기 초기 그들은 제국의 실질적인 통제에서도 고려의 國體와 정체성을 자각하는 노력을 지속했고, 그것은 고려의 상고사를 고조전에서 연원하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찬술 배경이 되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⁷⁾

II. 일연의 활동과 교유 인물

사서로서 『삼국유사』의 위상을 평가하려면 같은 시기에 편찬된 다른 사서와의 관계에서 비교 검토가 우선적이다. 그렇지만 『제왕운기』가 유일하게 현전하고, 『천추금경록』·『고금록』 등 다른 사서가 전하지 않아 거의 가능하지 못하다. 다음은 일연이 교유했던 역사편찬자와의 관계를 검토해 그들이 공유했던 현실

5) 일연의 碑銘은 ‘普覺國師碑銘’으로 題額되어 있고, 원래 제목은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이다. 여기에서는 「보각국사비」로 약칭한다. 碑銘은 운문사 주지 淸玢이 정리해 충렬왕에게 올린 행장을 토대로 지어졌는데, 청본은 바로 『삼국유사』의 「前後所藏舍利」와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서 追記가 확인되는 無極이다. 「普覺國師碑」(<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6) <표> 『보각국사비』의 受法乳卿士大夫 참조.

7) 이 작업은 원 간섭기 當代史 편찬의 측면에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의 성격을 지니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추후 각론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다.

인식이 『삼국유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유추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연의 현실 인식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 「보각국사비」에 수록된 단월 중 일연에게 불법을 받은 경사대부를 중심으로 교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일연의 삶을 정리한 「보각국사비」는 제자인 청분[無極]이 정리한 행장을 토대로⁸⁾ 閔漬(1248~1326)가 칙명으로 지어 1295년(충렬왕 21) 건립되었다. 뒷면의 음기는 운문사 주지 통오진정대선사 山立이 지었다. 음기 마지막에는 국존을 따르고 親附하여 불법을 얻었거나 불법을 도운 승려와 제자,⁹⁾ 그리고 국존의 法乳를 받은 경사대부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승려를 제외한 단월의 관품은 1품 4명, 2품 17명, 3품 9명, 4품 이하 9명, 모두 39명으로 원종과 충렬왕 대의 관료이다. 이들이 속세에서 일연과 깊은 인연을 맺고 교유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점에 국왕인 원종과 충렬왕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들과 일연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면, 그의 현실 인식과 함께 『삼국유사』 찬술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각국사비」를 중심으로 일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연과 단월의 관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 관계망은 시기적으로 일연이 국존으로 책봉되던 1283년(충렬왕 9)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즉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물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¹⁰⁾ 대체로 원종의 명으로 1261년(원

8) 이제현이 지은 무극의 비명인 「寶鑑國師碑銘」에서는 “근세에 大比丘로 佛祖의 도를 밝혀 배우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준 승려로 普覺國師를 칭송하고, 그 적통을 寶鑑國師가 이었다”고 서술하는 한편, 銘에서는 九山門의 적통이 도의-학일-건명(일연)-鑑知(무극)으로 계승되었다고 읊었다. 『익재난고』 卷7, 비명,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并序」.

9) 이에 대한 검토는 한기문, 『일연과 그의 시대』(서울, 역락, 2020), 88~103쪽 참조.

10) 단월 중 일연과의 관계나 생물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1품 첨의중찬 상장군 洪子藩(1237~1306), 첨의중찬 판전리사 元傳(1220~1287), 2품 첨의찬성 수문전대학사 任翊(?~1301), 지첨의시랑 찬성사 金璉(1214~1291), 지밀직사 좌상시 상장군 崔有渰(1231~1339),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朴之亮(?~1292), 상장군 吳睿·鄭守祺·李英柱, 보문서학사 金砥, 위위운 崔資奕, 비서운 지제고 吳漢卿(1241~1314), 사재운 柳

중 2) 강도로 올라와 선월사에 주석하면서 맺은 관계망과 1281년 충렬왕의 부름으로 경주 행재소에 다녀온 이후 1283년 국존에 책봉되고 이듬해 인각사에 돌아올 때까지 맺은 관계망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문하시중 판한림원사 이장용(1201~1272), 첨의중찬 상장군 송송례(1207~1289), 문하시랑평장사 보문각 대학사 김구(1211~1278), 첨의찬성사 집현전대학사 朴恒(1227~1281), 참지정사 상장군 李應韶, 참지정사 상장군 朴松庇(?~1278), 지첨의사 보문서대학사 張鎰(1207~1276), 국자좨주 지제고 崔寧 등이 해당한다. 또 후자에는 첨의찬성사 수문전대학사 상장군 鄭可臣(1224~1298), 대광 첨의찬성사 상장군 廉承益(?~1302), 지첨의사 대학사 상장군 金周鼎(?~1290),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羅裕(?~1292), 부지밀직사 감찰대부 閔萱(?~1310),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金頤(?~1299), 근시 중랑장 金龍鉞 등이 포함된다. 물론 원종 때부터 충렬왕때까지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다. 문신과 무신이 망라되어 있고, 『고려사』 편찬자의 기준이지만 폐행과 간신도 포함되어 있다.¹¹⁾ 국왕의 측근인 폐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연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원종 때 일연과 교류한 단월은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는 왕정복고를 주도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대외적으로 몽골과 강화론을 주도하거나 이후 몽골과의 외교를 적극 수행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260년대 여름까지 강도에서 일연의 활동에 대해서 「보각국사비」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琚, 4품 금오위장군 朴■■■, 전리총랑 金元具, 낭장 崔有■■, 좌랑 李世祺, 지후 尹奕, 박사 金元祥(?~1339), 한림 金■■■, 조봉랑 金台■■ 등 21명이다. 여기서 이들의 관직은 「보각국사비」가 건립되는 129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최종 관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碑 건립 당시의 현직이다.

- 11) 염승익·민환·이영주는 璧幸傳에, 김원상은 姦臣傳에 수록되었고, 이응소·이덕손은 폐행과 같은 평을 받았다. 『고려사』 卷123, 列傳36, 폐행, 정세신 및 임정기 부 민환; 卷125, 列傳38, 간신, 김원상.

A-1. 기유년(1249) 相國 鄭晏이 南海의 私第를 희사해 절을 만들어 定林社라 하고, 스님을 주지로 초청했다. 기미년(1259) 大禪師를 더했다. 중통 신유년(1261) 조서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 禪月社에 주지하면서 법당을 열고 멀리 牧牛和尚의 법통을 이었다. 지원 원년(1264) 가을이 되어 여러 번 남쪽으로 돌아가기를 청해 오어사에 머물렀다. 얼마 후 仁弘社 주지 萬愜가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넘겨주었는데, 學侶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무진년(1268) 여름 왕명이 있어 선종과 교종의 명성과 덕망 있는 승려 백여 명을 모아 雲海寺에서 대장경 낙성회를 열고, 스님에게 청해 법회를 주관하게 했다. 낮에는 불경[金文]을 읽고 밤에는 교리[宗趣]를 담론했는데, 여러 승려가 疑問하는 것을 스님께서 모두 물흐르듯이 명확하게 풀이했고 정밀한 뜻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普覺國師碑』).

무신집정자 최이의 처남인 鄭晏이¹²⁾ 창건한 정림사에서 대장경 조성 사업을 하며 중앙 정계와 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일연은 1259년(고종 46) 대선사가 되었다. 그는 1261년 원종의 명으로 강도에 올라와 선월사에 머물렀다. 이때 일연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한 장본인으로 박송비를 주목한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德原의 향리로 군오에 적을 두었다가 장군이 된 그는 1258년 유경·김준 등과 함께 왕정복고를 주도한 후 김준과 권력 투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연은 박송비의 지원을 받아 왕명으로 선월사에 머물고, 운해사에서 대장경낙성회를 주관했다고 한다.¹³⁾

일연은 선월사에서 開堂하고 禪敎合一을 주창한 지눌을 계승했음을 선언한 후 4년 만인 1264년 가을 남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선월사를 중심으로 무신

12) 일연이 중앙 정계와 첫 번째로 관계를 맺은 鄭晏이 단월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보각국사비」가 원종과 충렬왕의 명으로 江都와 개경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3)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서울, 신서원, 1998), 37-39쪽; 채상식, 「일연과 『삼국유사』」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313-314쪽.

정권의 잔재 청산과 불교계의 재편을 위한 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즉 일연의 선월사에서 개당과 조계종 초대 수선사인 지눌의 법통을 이었다는 선언은 선원사를 중심으로 무신정권의 후원이 되었던 조계종의 활동을 청산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전환하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¹⁵⁾ 『동인지문오칠』에는 선월사를 주제로 한 이장용의 시 2수가 전하는데,¹⁶⁾ 일연이 이곳에 주석할 때 교유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A-2-1) 스님이 仁弘寺 주지로 있는 지 11년이 되던 해에 이 절을 창건한 지 이미 오래되어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또 지대가 낮고 좁아 스님이 중건하거나 새로 지어 확장했다. 이에 조정에 아뢰니 이름을 仁興으로 바꾸고 어필로 題額을 내려주었다. 또 包山 동쪽 기슭에 湧泉寺를 중수하여 佛日社라고 했다. 국왕께서 즉위한 지 4년째인 정축년(1277)에 조서를 내려 雲門寺에 주지하게 하고, 玄風을 크게 찬양했다. 국왕께서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져 시를 지어 보내 “은밀히 전

14) 이보다 앞서 수선사의 混元은 1245년(고종 32) 최이의 요청으로 선원사의 낙성회에서 법석을 주관했고, 이듬해에도 최이가 개당하기를 청하자 법좌에 올라 조계종의 3세 수선사인 淸眞國師 夢如의 후계자가 되었다. 『동문선』 卷117, 비명,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金坑).

15)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불교계를 재편하려는 조치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 채상식, 앞 글(2002). 禪源社는 최이가 창건한 사찰로, 고종의 명으로 그의 眞影을 봉안하고 있었다. 『梁宅椿墓誌銘』(<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고려사』 卷129, 列傳42, 최충헌 부 최항. 1262년(원종 3) 10월에는 왕명으로 崔沆의 옛집을 허물고 그 땅을 집이 없는 관리와 평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같은 책 卷25, 원종 3년 10월 임신(19일). 최씨 정권 이후에는 유천우가 많은 재물로 선원사에서 김인준(김준)의 복을 비는 佛事를 하기도 했다. 같은 책 卷105, 列傳18, 유천우.

16) 『동인지문오칠』 卷8, 「禪月寺四涼亭次韻」 및 「遊禪月寺」. 이장용은 일연보다 5년 연배였다. 강도의 禪月寺와 선원사, 개경 仙月寺(『신증동국여지승람』 卷4, 개성부 상, 불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禪月寺와 선원사가 같은 곳으로 추정한 견해를 따른다. 윤기엽, 「元 간섭 초기 고려 禪宗계의 변화와 사원 동향: 주요 선종 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12(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채상식,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7) 참조.

하니 어찌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는가.金地(사찰)에서 만난 것이 기이할 뿐이네.璉公(송 승려 懷璉)을 청해 대궐에 맞고자 하는데, 스님은 어찌 오래도록 나뭇가지에 걸린 白雲만 그리워하는가”라고 했다.

A-2-2) 신사년(1281) 여름 東征으로 인해 국왕께서 東都에 행차해 詔書로 스님을 행재소로 오게 했다. 도착하자 䟽를 지어(國尊에)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니 높이고 공경하는(마음이) 갑절로 생겼다. 이로 인해 스님이 佛日結社文을 가져다가 제액을 쓰고 押印하여 불일사에 보관했다. 다음 해 가을 近侍 將作尹 金顔으로 하여금 조서를 전달하게 해 대궐에서 맞게 했다.大殿에서 禪을 강설할 것을 청해(듣고) 龍顔에 기쁨이 넘쳐났다. 有司에게 勅書를 내려 廣明寺에 머물게 했는데, 절에 들어간 날 밤에 어떤 사람이 方丈 밖에 서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세 번을 말해 그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겨울 12월에 국왕께서 친히 방문하여 불법의 요체를 자문했다. 다음 해 봄에 국왕께서 여러 신료에게 말하기를 “나의 先王께서는 釋門의 德이 큰 분을 모두 王師로 삼았고, 德이 더욱 큰 분을 國師로 삼으셨다. 과인에게는 유독 없으니 옳은가? 지금 雲門和尚이 道가 높고 德이 성대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니 어찌 寡人만 홀로 자비로운 은택을 입음이 마땅한가? 온 나라와 함께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에 우승지 廉承益을 보내 국왕의 뜻을 받들어 國尊으로 책봉하는 예를 행할 것을 청했으나, 스님은 表를 올려 굳게 사양했다. 국왕께서 다시 사신을 보내 간절히 세 번을 청하고 아울러 상장군 羅裕 등에게 명해 國尊으로 책봉하고, 호를 圓徑冲照라고 했다. 책봉을 마치고 4월 신묘일에 궁궐로 맞이해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攝衣禮를 행했다. 國師를 國尊으로 고친 것은 大朝(원)의 國師라는 칭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A-2-3) 스님은 평소 서울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어머니가 연로하여 옛날에 머물던 산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했는데, 사임할 뜻이 매우 간절했다. 국왕께서 그 뜻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워 윤택했다. 근시 좌랑 黃守命에게 명해 행차를 호위하게 하

고下山하여 어머니를 잘 모시게 하니 朝野에서 드문 일이라고 감탄했다.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96세였다. 이해에 조정에서 麟角寺를 (국존의) 下安 장소로 삼고, 칙서를 내려 근시 金龍鉞에게 이곳을 수리하게 하고, 또 논밭 100여 頃을 헌납해 常主할 곳을 꾸미도록 했다. 스님이 인각사에 들어가 다시 九山門都會를 여니 총림의 융성해짐은 近古에 있는 적이 없는 정도였다(『普覺國師碑』).

1264년 강도에서 오어사로 내려왔다가 이듬해에 인흥사 주지가 된 일연은 1269년 다시 강도로 올라가 佛華寺에 머물렀다. 이때의 상경도 국왕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장용·유경·李松縉·김구·이승휴 등과의 교유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자료 A-3은 충렬왕과 관계에 관한 서술이다. A-3-1)에서 확인되듯이 1276년(충렬왕 2) 仁弘寺를 중창하고 국왕으로부터 인흥사로 사액을 받았다. 또 포산의 용천사도 중수하여 불일사로 개창했다. 다음해에는 왕명으로 운문사 주지를 맡았는데, 이때 충렬왕은 송나라 인종이 대궐로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선사 懷璉의 일에 빗대는 시를 지어 보내 일연을 개경으로 초청할 뜻을 전했다. 원중에 이어 충렬왕도 일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과 원과 관계에서 일연의 현실 인식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충렬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계속 운문사에 머물렀다. 그런 중에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2차 동정 준비를 제안해 1280년 10월 원은 정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고려에 내렸고, 충렬왕은 이를 고려의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 등을 포함한 요청 사항을 원 중서성에 보내 쿠빌라이의 승인을 받았다.¹⁷⁾ 1281년 4월 충렬왕은 함포로 행차했는데¹⁸⁾ 정동을 위해 출발하는 군사를 사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경주에 머물며 征東軍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때 충렬왕은 자료 A-3-2)에서처럼 일연을 행재소로 오게 해 국존으로 책

17) 『고려사』卷29, 충렬왕 6년 10월 및 11월 己酉(11일); 12월 辛卯(23일).

18) 『고려사』卷29, 충렬왕 7년 4월 丙寅(1일) “幸合浦 右副承旨鄭可臣扈從”.

봉할 뜻을 밝혔고, 일연은 앞서 결사를 위해 불일사를 개창할 때 쓴 『佛日結社文』을 가져와 국왕의 제액을 받아 불일사에 보관했다.¹⁹⁾ 결사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190년(명종 20) 보조국사 지눌이 당시 불교계 정화를 위해 居祖寺를 定慧社로 바꾸고 『勸修定慧結社文』을 선포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²⁰⁾ 즉 1276년 용천사를 불일사로 개창하고 『불일결사문』을 지은 것은 원 간섭기 불교계의 변화를 내용으로 했을 것이다. 또 1281년 국왕의 제액을 받았다는 것은 일연의 뜻을 충렬왕이 승인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결사에 참여한 단월도 있었을 것인데²¹⁾ 확인되지 않는다.

충렬왕 때의 단월은 원과 관계에서 전면에 나서 고려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국왕 측근으로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전개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1278년(충렬왕 4) 10월 재추가 많아 정사가 수월하게 운영되지 못하니 비척지를 두어 機務를 맡기도록 하자는 김주정의 건의를 수용해 14명의 비척지를 항상 禁中의 기무에 참여하게 해 이들을 別廳宰樞라고 불렀는데,²²⁾ 이들 중 일연의 단월로 확인되는 사람들은 김주정·박항·염승익·정가신(초명 鄭興) 4명이다. 이들을 비롯해 충렬왕의 측근들이 단월로 기록된 것은 일연에 대한 충렬왕의 관심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金鎭圭의 『毘瑟山湧泉寺古蹟記』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때 의상이 창건한 玉泉寺를 일연이 개수해 용천사로 바꾸었다가 1281년 충렬왕이 東都에 갔을 때 일연이 佛日結社文을 가지고 와서 국왕의 題額을 받아 이 절에 보관한 사실과 관련지어 사찰명을 불일사로 바꾼 것으로 기록했다. 즉 그 시기를 『보각국사비』와 달리 충렬왕이 東都에 갔을 때로 파악했다. 『竹泉集』 卷6, 記, 『毘瑟山湧泉寺古蹟記』. 한편 이때 충렬왕은 승려들에게 僧批를 내렸는데, 승려들은 국왕 측근에게 비단을 뇌물로 주어 僧職을 얻어 사람들이 『羅禪師』나, 『綾首座』라고 비꼬았다고 한다.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6월 癸未(19일).

20) 『松廣寺普照國師碑』(<https://portal.nrich.go.kr/>); 최병현, 『定慧結社의 趣旨와 創立過程』 『보조사상』 5·6(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92); 박영제, 『불교사상의 변화와 동향』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43-54쪽.

21) 한기문, 앞 책, 47-53쪽.

22) 『고려사』 卷28, 충렬왕 4년 10월 辛未(21일); 卷104, 列傳17, 김주정.

구체적인 교유가 확인되는 단월은 일연의 국존 책봉과 관련해 충렬왕과 일연 사이를 오가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즉 충렬왕 대의 단월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1281년 정동과 관련한 합포·경주 행차 때부터 일연의 국존 책봉과 1284년(충렬왕 10) 다시 인각사로 돌아갈 때까지 인연을 맺었던 이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가신인데, 그는 1281년 4월 합포와 경주 행차, 그리고 7월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충렬왕을 호종했다. 물론 그와 일연의 직접적인 교유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때 그들이 교유했음은 분명하다. 이덕손은 이때 동경유수로 임명되어 충렬왕이 동경에 머물 때 접대와 편의를 제공해 부윤으로 승진했다. 일연과의 교유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는 또 일연이 하산해 인각사에 머물 때인 1285년(충렬왕 11) 경상도왕지사용별감, 1288년 경상도 권농사로 파견되고 있어²³⁾ 이때까지 교유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⁴⁾ 홍자번·원부²⁵⁾·임익·최유엄·오한경 등도 이 시기에 교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개경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인 8월에도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황후인 소예순 성황후의 장례를 위해 원에 다녀온 공주와 함께 경상도로 행차했는데,²⁶⁾ 역시 어려움을 겪던 정동에 대한 상황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국왕이 순안현에 이르자 경상도안렴사였던 민환은 새로 지은 院에서 국왕과 공주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 그는 또 상서로 1283년(충렬왕 9) 동경지유수사로 부임했다.²⁷⁾ 충렬왕이 안동부

23) 『고려사절요』 卷20, 충렬왕 11년 5월 및 卷21, 충렬왕 14년 3월.

24) 이덕손은 경상도왕지사용별감으로 백성의 고혈을 짜내 국왕의 충애를 얻어 衛尉尹으로 승진했는데, 이때 근시별감이던 金龍劔은 驛 벽에 “慶尙州道 쇠잔한 백성의 피로 이덕손의 3품 관복을 염색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에 이덕손이 충렬왕에게 고해 김용검은 유배되었다. 『고려사』 卷123, 列傳36, 폐행, 권의 부 이덕손.

25) 원부는 廉守臧의 사위로 역시 일연의 단월인 염승익과 인척지간이다. 「元傳墓誌銘」(<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26)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8월 丁卯(4일).

27) 『東都歷世諸子記』(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윤경진, 「고려후기 先生案 자료를 통해 본 外官制의 변화」 『국사관논총』

로 옮기니 안동부사 김군이 채봉을 설치하고 풍악을 울리며 영접했다.²⁸⁾ 민환과 김군은 경상도안렴사와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운문사 주지였던 일연과 교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또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정이 실패하고 개경으로 돌아온 충렬왕은²⁹⁾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³⁰⁾ 12월에는 충렬왕이 세자로 원에 입조했을 때 호종한 측근과 앞서 강도에서 변란을 일으켰던 임유무를 격퇴한 신료를 어떻게 포상할지 논의하라는 율령을 내렸다.³¹⁾ 원에서 세 번째 정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³²⁾ 측근을 중심으로 한 정국 운영을 강화했다. 충렬왕이 일연을 대궐로 부르고 국존에 책봉하려는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1282년(충렬왕 8) 가을 국왕은 일연을 서울로 부르는 조서를 근시 장작운 김군에게 주어 보내 10월 내전에서 일연을 만났다.³³⁾ 그리고 大殿에서 禪을 강론했고, 충렬왕은 일연을 태조의 사제에 마련된 왕실 사찰인 광명사에 머물도록

10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28)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8월 丙子(13일) 및 丁丑(14일). 이때 甫州副使 朴璘은 시냇가에 정자를 짓고 잔치를 열어 국왕 측근에게 청송을 들었고, 안동판관 李檜는 백성의 인력과 재물을 아껴 영접 비용을 크게 줄여 어가를 맞는 의례가 화려하지 않아 內僚의 비난을 들었다. 이 때문에 李檜는 보주부사로, 박린은 안동부사로 교체되었는데, 金鵬도 이때 近侍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29)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윤8월 庚申(28일).

30) 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征東의 수고를 명목으로 충렬왕에게 입조하지 말 것과 僉議府를 종3품으로 승격시켜 그 印을 주조해 보냈다. 또 征東行中書省을 폐지했다.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9월 乙亥(13일) 및 癸未(21일); 8년 1월.

31) 『고려사』 卷29, 충렬왕 7년 12월 庚戌(19일). 1282년 5월 국왕 측근들을 공신에 책봉하고 자손을 錄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같은 책, 충렬왕 8년 5월 庚申(2일).

32) 1283년 1월에는 征東의 진행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낭장 仇千壽를 원에 보냈는데, 平灣州에서 전함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왔다. 3월에는 원에서 江南軍을 징발해 8월에 다시 東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고려사』 卷29, 충렬왕 9년 1월 乙亥(20일) 및 3월 乙卯(1일).

33) 『고려사』 卷29, 충렬왕 8년 10월 壬寅(16일).

했다. 또 12월에 충렬왕은 공주와 함께 광명사로 일연을 방문해³⁴⁾ 불법의 요체를 자문했다. 다음 해 정월에는 충렬왕이 병세가 있어 재차가 광명사에서 법회를 열었는데,³⁵⁾ 이 역시 일연이 주관했을 것이다. 이후 일연을 국존으로 책봉하려는 논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승지 염승익과 상장군 나유를 보내 국존으로 책봉하고 호를 圓徑冲照라고 했다.³⁶⁾ 4월에는 일연을 궁궐로 맞아 충렬왕이 직접 백관을 거느리고 국존으로 책봉하는 攝衣禮를 행했다.³⁷⁾ 9월에는 국왕과 공주가 金字大藏院에서 승려들을 대접했는데,³⁸⁾ 동정이 중지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일연은 국존의 자격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일연이 1283년 언제 개경을 떠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A-3-3)에서는 평소 서울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돌아갈 뜻을 수 차례 밝혀 충렬왕이 마지못해 허락했다고 한다. 이에 근시였던 좌랑 황수명에게³⁹⁾ 호위

34) 『고려사』卷29, 충렬왕 8년 12월 乙未(9일).

35) 『고려사』卷29, 충렬왕 9년 1월 甲戌(19일).

36) 『고려사』卷29, 충렬왕 9년 3월 庚午(16일) “以僧見明爲國尊”. 한편 征東을 위해 각 도에 사신을 보내 군량을 비축하며 병기를 제작하고 전함을 수리하도록 하는 조치도 같은 날 이루어졌다.

37) 攝衣禮가 열린 날에도 원에서는 사신을 보내 전함 수리를 감독하게 하고, 東界 杆城縣에 살다 원에 투화한 宋蕃의 말에 따라 征東을 위한 군량 4만 석을 요구해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동정은 5월에 중단되었다. 『고려사』卷29, 충렬왕 9년 4월 辛卯(7일) 및 5월 己卯(26일).

38) 『고려사』卷29, 충렬왕 9년 9월 己未(9일). 金字大藏院은 1281년 寵臣 염승익이 헌납한 집을 金字大藏寫經所로 삼은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의 飯僧을 거쳐 1289년(충렬왕 15) 10월 金字大藏經이 완성되자 국왕과 공주가 金字院에 행차해 이를 보고 慶讚會를 열었다. 『고려사절요』卷20, 충렬왕 7년 3월 및 卷21, 충렬왕 15년 윤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염승익의 발원으로 1283년 제작되어 개경 南溪院 석탑에 안치된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7」이 전하는데, 이 또한 金字大藏院에서 寫經된 것으로 추정된다.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7」(<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고려사』卷29, 충렬왕 9년 7월 戊午(6일) “命廉承益·孔愉 修玄化寺 又修南溪院·王輪寺石塔”.

39) 『보각국사비』에 기록된 충렬왕 대의 관료 중에서 黃守命만 단월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는 충렬왕 4년 忠淸道王旨使用別監으로 勸農別監에

해서 하산하도록 했다. 다음 해에는 인각사를 하안의 장소로 삼아 수리하고 논밭 100여 경을 하사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는데, 충렬왕은 근시인 김용검을 파견해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⁴⁰⁾

『보각국사비』에서 일연의 마지막 활동은 두 번째의 九山門都會를 주관한 것이다. 그 성격은 고려 불교계에서 일연이 속한 가지산문을 중심으로 선종 계열 9산의 문도가 모두 회합한 것으로 가지산문이 선종은 물론 고려 불교계의 교권을 이미 장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⁴¹⁾ 죽음에 이르러서는 충렬왕에게 바칠 글을 써서 국존에 책봉될 때 실무 책임자였던 염승익에게 보내 입적을 알렸다.⁴²⁾

충렬왕 때의 단월인 朱悅(?~1287)은 1270년 이후 동경유수와 경상도안무사로, 또 충렬왕 즉위 후 경상도계점사로 나갔을 때부터 교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⁴³⁾ 『東都』라는 시가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1281년의 국왕 행차를 호종했을 가능성도 있다.⁴⁴⁾ 김주정은 1281년의 정동에 소용대장군 좌우부도통으로 참전한 이후 밀직사로 개경에서 교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1283년 4월 연등도감에서 열병을 주관하기도 했다.⁴⁵⁾ 김원상은 1284년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미루어⁴⁶⁾ 일연이 인각사에 머물 때 교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貢文伯은 1287년(충렬왕

임명되었는데, 그다지 청렴하지는 않았으나 백성을 제법 구휼했다는 평을 들었다. 『고려사』 卷28, 충렬왕 4년 2월 癸酉(20일) 및 卷123, 列傳36, 폐행, 인후.

40) 이때 馬山驛吏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내일 국왕 사신이 曇無竭菩薩이 살 곳을 수리하기 위해 이곳을 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한다. 일연이 담무갈보살로 비유된 것이다. 『보각국사비』.

41) 채상식, 앞 글(2002), 313쪽.

42) 이때 염승익은 지도점으로 있다가 1288년 1월 면직된 상태였다. 『고려사』 卷30, 충렬왕 14년 1월 庚寅(5일).

43) 『고려사』 卷27, 원종 13년 5월 戊午(1일); 卷28, 충렬왕 4년 11월 丁酉(18일) 및 5년 9월 癸丑(9일).

44) 『동인지문오칠』 卷9, 『東都』(知府 朱悅).

45) 『고려사』 卷29, 충렬왕 9년 4월 乙酉(1일).

46) 『담암일집』 卷2, 행장, 『文憲公彝齋先生行狀』(白頤正).

13) 8월 동경지유수사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된다.⁴⁷⁾

단월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각국사비」를 지은 민지와의 관계도 궁금하지만, 1280년(충렬왕 6) 전중시사 이후 1288년 8년 전리정랑 사이의 8년간 그의 활동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어⁴⁸⁾ 일연과 교유 사실은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세대편년절요』와 『본조편년강목』에서 그의 역사 인식은 『삼국유사』에서 일연의 신이사관과 비교된 바 있다.⁴⁹⁾

III. 일연·이승휴의 네트워크와 현실인식

「보각국사비」에서 일연의 단월로 기록된 39명의 관료들은 재추 21명, 그 이하 19명이다.⁵⁰⁾ 여기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부터 국왕 측근으로 폐행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까지 성격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 10여 명은 「보각국사비」 건립 전후 史館에서 역사편찬의 책임 또는 실무를 맡아 실록을 비롯한 사서를 편찬했는데, 이것이 『삼국유사』의 찬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삼국유사』에 이 시기 역사편찬의 흐름이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장용은 직사관을 지내고 후에 감수국사로 동수국사 유경, 수찬관 김구·허공과 신종·희종·강종의 삼대실록을 편찬했다.⁵¹⁾ 원부는 직사관, 충사관수찬관, 동수국사, 수국

47) 『東都歷世諸子記』(노명호 외, 앞 책); 윤경진, 앞 글 참조.

48) 「고려사」 卷29, 충렬왕 6년 3월 乙卯(14일) 및 卷30, 충렬왕 14년 4월 戊寅(24일).

49) 민현구, 앞 글(1996); 이창국, 「元 간섭기 閔漬의 현실인식: 불교기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4(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성이, 「민지의 사유와 문학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염중섭, 「자장(慈藏)의 중국오대산행(中國五臺山行)에서 보이는 문수(文殊)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 검토: 일연(一然)과 민지(閔漬)의 기록 차이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106(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50) 정병삼, 앞 책, 48-50쪽.

51) 「고려사」 卷26, 원종 8년 10월 壬午(29일). 김성환, 「무인집권기 시평(時評)을 통해 본 실록 편찬의 경향」 『포은학연구』 35(용인, 포은학회, 2025(b)).

사, 감수국사를 역임했는데 수국사로는 감수국사 유경, 동수국사 김구와 『고종실록』을 편찬한 바 있으며,⁵²⁾ 감수국사로 수국사 허공·한강 등과 『고금록』을 편찬했다.⁵³⁾ 임익은 『희종실록』에 최충헌의 政柄 전단 사실을 비판하는 사론을 실었고,⁵⁴⁾ 동수국사로 사관수찬관 김변과 『선제사적』을 편찬했다.⁵⁵⁾ 정가신은 『천추금경록』을 찬술해 國史를 크게 정비하고 1298년 감수국사가 되었다.⁵⁶⁾ 김구는 수찬관, 동수국사를 지냈는데 삼대실록과 『고종실록』 편찬 사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주열도 수찬관으로 『고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⁵⁷⁾ 이밖에 김주정은 동수국사,⁵⁸⁾ 장일은 직사관을 거쳐 수국사를 역임했고,⁵⁹⁾ 최유엄은 1308년(충선왕 즉위) 감춘추관사를 지냈으며,⁶⁰⁾ 오한경(吳訥으로 개명)도 감춘추관사로 치사했다.⁶¹⁾ 또 「보각국사비」를 지은 민지도 동수국사를 지내고 『세대편년절요』와 『본조편년강목』을 편찬했다는 것은⁶²⁾ 앞서 서술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원의 요구 또는 그 영향으로 이루어진 당대사 편찬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찬술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

52) 『고려사』卷28, 충렬왕 3년 5월 壬寅(14일).

53) 『고려사』卷29, 충렬왕 10년 6월 丙子(30일).

54) 『고려사절요』卷4, 희종 5년 9월.

55) 『고려사』卷31, 충렬왕 21년 3월 丁巳(13일). 김성환, 앞 글(2024(a)).

56) 『고려사』卷105, 列傳18, 정가신; 『동인지문오칠』卷9, 「鄭可臣小傳」; 『고려사』卷33, 충선왕 즉위년 5월 신묘(6일). 김성환, 앞 글(2024(b)).

57) 『고려사』卷107, 列傳20, 원부.

58) 「金深墓誌銘」(<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考諱周鼎 宣授昭勇大將軍管軍萬戶 匡靖大夫知都僉議府事實文閣太學士 同修國史判三司事上將軍 謚文肅公…”.

59) 『고려사』卷106, 列傳19, 장일.

60) 『고려사』卷33, 충선왕 원년 4월 辛未(19일).

61) 『고려사』卷109, 列傳22, 오형.

62) 『고려사』卷31, 충렬왕 25년 9월 癸巳(21일); 卷33, 충선왕 복위년 12월 戊午(4일) “遣評理趙璉如元 賀正 以王命賚世代編年節要并金鏡錄 以進”; 卷34, 충숙왕 원년 1월 乙巳(20일) “命政丞致仕閔漬·贊成事權溥 略撰太祖以來實錄” 및 4년 4월 庚子(4일) “檢校僉議政丞閔漬 撰進本朝編年綱目”; 卷107, 列傳20, 민지.

B, 禪門의 韻士인 見明이 그 발자취를 구름에 두고 말소리를 빗속에 섞어 남쪽 지방에서 산 지 20여 년이다. 국왕께서 불러들여 지금은 佛華寺에 머물고 있다. 慶原君 李侍中和 始寧君 柳平章께서 말고삐를 나란히 해 선사에게 道를 배웠는데, 柳公이 먼저 부르면 李公이 화답하고 明公(견명)이 함께 쫓아 놀았다. (李)諫議(李松縉)와 金大司成(金堧)가 번갈아 시를 지어 모두를 두루마리 하나로 만드니 (江都의) 시중(洛下)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읊어졌다. 李承休가 옆드려 생각건대 이 같은 성대한 일에 천하고 용렬한 재주를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가 약간의 시를 지어 두 분 정승 아래에 봉헌한다(『동안거사집』 권2, 행록, 「次韻李柳兩令公唱和詩并序」).

자료 B는 일연이 이장용·유경 등과 詩會하는 모습이다. 이승휴가 쓴 서문에서 禪門의 시인으로 불린 見明은 다름 아닌 일연의 이름이다. 불화사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강도 안에 있었던 사찰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시회에는 모두 다섯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원군 이시중은 이장용, 시령군 유평장은 유경, 이간익은 李松縉, 김대사성은 김구를 가리킨다. 이로 미루어 일연은 이미 남쪽 지역에서 선문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지은 시는 두루마리 한 축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이 이를 베껴 서로 읊었다고 한다. 이승휴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중에 자신이 지은 시를 은문인 이장용과 유경에게 봉헌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안거사집』에 모두 6수의 시가 전하는데, 4수는 시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장용과 유경에게 바친 것이고, 나머지 2수는 국왕의 지우를 얻으려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앞의 4수 중 첫 번째 시에서의 遊僧과 네 번째 시에서의 明師도 견명, 일연을 가리킨다. 특히 네 번째 시에서 “견명 스님은 廬山처럼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개울을 지나며 이 별의 시를 지었네”라고 읊었다.⁶³⁾ 여산은 중국 강서성 구강현에 있는데, 匡山 또

63) 『동안거사집』 권2, 행록, 「次韻李柳兩令公唱和詩并序」 “(一) 篆畦煙裊統龕絲 寺在神州縹緲幾 萬里遍遊僧獨臥 一池同浴鳳雙飛 豁開吞澤胸中蘊 笑得拈花手下幾 爲報奢

는 匡廬라고도 불렸다. 동진의 승려 혜원이 백련사를 개창한 곳이자 이백·구양수 등이 이곳을 배경으로 지은 시도 유명했다. 이승휴가 일연을 여산에 비유한 것은 결사를 통해 불교계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일연은 자신을 천거해 준 이장용·유경과 같이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시회를 열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4명이 지니고 있던 관직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장용의 관직은 시중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가 문하시중을 맡았던 때는 1268(원종 9) 정월부터 사망하는 1272년 정월까지 만 4년이다. 유경이 평장사로 있었던 때는 1269년 4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약 1년이다. 이송진이 간의대부에 임명된 때는 1262년(원종 3) 12월이고 1269년에 국자좨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김구는 1269년 4월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12월에 좌복야가 되었으니 약 8개월이다. 그렇다면 4명의 관직이 공통으로 맞는 시기는 1269년(원종 10) 4월부터 12월 이전까지이다. 여기에서 유경이 환관의 폐단을 지적하다가 그들의 참소로 오히려 흑산도로 유배되는 때가 4월 17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⁶⁴⁾ 시회는 4월 초중순에 열렸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즉「보각국사비」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일연은 1268년 왕명으로 운해사에서 고승대덕을 모아 대장경 낙성법회를 주관하고 상경해 강도의 불화사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듬해 초여름 시회를 통해 교류했고, 이승휴는 이때 이미 일연의 명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시회에서 이장용과 유경을 수행하면서 일연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교류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승휴는 은문인 이장용·유경과 교류했던 일연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고려 불교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일연의 위상과 동향도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보각국사비」에서 단월로 기록된 이장용과 김구가 일연과 직접 교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梨鉉盛事 半千兩相一時歸 (四) 補袞身爲五色絲 功名冠出舜君畿 錦街纔見脂輪出 雲嶺端能謁屐飛 方外逍遙誰得狀 淡中消息自傳幾 明師莫是廬山遠 不覺過溪聊送歸”.

64) 『고려사』卷26, 원종 10년 4월 壬戌(17일).

할 수 있다.

송송례의 경우에는 1264년 상반기 원종의 몽골 친조를 둘러싼 백승현의 延基業 실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공방에서 일정한 추측이 가능하다. 앞서 고종 말에 시행되었다가 국왕 사망으로 중단된 연기업이 이때 다시 실행되었는데, 원종은 내시 대장군 조문주·국자좌주 김구·장군 송송례 등에게 명해 삼랑성과 신니동에 가궐을 짓도록 했다. 그런데 예부시랑 김궤는 도참설에 반대하며 우복야 박송비에게 연기업의 실행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⁶⁵⁾ 박송비는 연기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듯하다. 일연이 이때의 연기업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국왕의 요청으로 불교계의 변화를 주도하며 선월사에 주석했던 그 또한 연기업 실행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구는 물론 송송례·박송비와도 교류했을 것이다.

단월로 기록된 박항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사간, 이응소는 추밀원사·좌복야,⁶⁶⁾ 장일은 국자좌주·중서사인,⁶⁷⁾ 최영은 내시로⁶⁸⁾ 활동하며, 모두 국왕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었다. 이들이 단월로 기록된 배경은 확인되지 않지만, 강도에 머물고 있던 일연에게 원종의 명을 전하거나 선월사를 방문해 일연과 교류하면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료 B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삼국유사』와 같이 고려의 상고사를 고조선에서 시작한 『제왕운기』를 지은 이승휴는 1269년 4월 초 쯤에 18년 연배의 일연과 강

6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환, 「고려 국왕의 마리산참성(摩利山塹城) 친초(親醮): 원종 5년(1264) 여름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 참성초에서 마니산산천제로』(서울, 민속원, 2021) 참조.

66) 추밀원사였던 이응소는 1264년 8월 파면된 박송비를 대신해서 좌복야에 임명되었다. 『고려사』 卷26, 원종 5년 8월 壬子(11일).

67) 張鑑은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삼았을 때 慶尙道水路防護使로 백성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교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사』 卷106, 列傳19, 장일.

68) 최영은 고종 말에 급제해 승선 柳璥이 許瑋·元公植(元傳의 초명)과 함께 추천해 모두 內侍에 소속시켜 政事點筆員을 삼았는데, 당시 이들을 政房三傑이라 불렀다고 한다. 『고려사』 卷105, 列傳18, 허공.

도에서 만난 적이 있다. 또 『제왕운기』가 1287년(충렬왕 13) 3월 찬술되어 충렬왕에게 진상되었고,⁶⁹⁾ 『삼국유사』가 일연이 국존으로 책봉되고 다시 하산한 1284년 이후부터 입적하는 1289년 사이에 찬술된 것이라고 할 때,⁷⁰⁾ 그들이 상대방의 저술을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두 사서의 찬술에 현실인식의 일정한 공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안거사집』에는 이승휴가 원종과 충렬왕 때 교유했던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연의 단월로 기록된 사람들과의 교유 양상이 확인된다. 이들과 이승휴의 관계를 통해 일연과의 관계 양상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역사인식체계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고조선을 고려 상고사의 출발로 인식한 통사였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다. 이런 측면에서 『동안거사집』에서 확인되는 일연의 단월과 이승휴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264년 정월 이승휴는 두 번째 좌주인 황보기의 제안으로 求官詩를 지어 여러 재상과 학사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이장용·최영·원부·박항이 포함되어 있다.⁷¹⁾ 5월에 백승현의 연기업을 실행할 때 이장용이 원종을 호종해 삼랑성가 궐에서 대불정오성도량을 개설하며⁷²⁾ 『臨江仙』을 지어 중흥의 조짐을 경하하자 그 운에 따라 시를 지었다.⁷³⁾ 이후 최영이 지은 『詠雪詩 30韻』을 차운하기도 했다.⁷⁴⁾ 김구와의 교유는 앞서 1269년(원종 10) 일연·이장용 등과의 시회에서

69) 『제왕운기』, 「帝王韻紀進呈引表」.

70) 『삼국유사』의 찬자로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 一然이 기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찬술 시기는 1284년 이후로 파악된다. 『삼국유사』 卷5, 신주6, 「密本摧邪」.

71) 『동안거사집』 卷1, 행록, 求官詩并序, 「慶源李侍中[公諱臧用]·「崔直講[諱寧]·「元少卿[諱傳]·「贈朴翰林恒」.

72) 『고려사』 卷26, 원종 5년 5월 癸卯(30일).

73) 『동안거사집』 卷2, 행록, 「慶源李侍中扈駕 遊衫廊城 作臨江仙令 以慶中興之兆 承休謹依韻課成[一首] 奉呈」.

74) 『동안거사집』 卷1, 행록, 「次韻崔直講[諱寧]詠雪詩三十韻」.

언급한 바와 같다. 또 김구가 증서성에 채 피지 않은 작약을 읊은 시를 차운하기도 했고,⁷⁵⁾ 1278년(충렬왕 4) 김구가 은퇴할 때는 그의 「退朝詩」를 차운해 공적을 칭송하는 한편 그 운을 다시 써서 박항에게 보내기도 했다.⁷⁶⁾

그런데 이승휴는 충렬왕 때 일연의 단원이었던 정가신·박항·김주정 등과 한림원을 중심으로 깊은 교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박항과의⁷⁷⁾ 교유는 1268년 4월경 백문절이 지공거가 된 金愷를 축하한 시를 차운해 박항에게 준 시부터 확인된다.⁷⁸⁾ 1274년(충렬왕 즉위) 10월에는 시랑 박항이 승선으로 한림원에 들어가게 되어 직강 정홍(정가신)이 축하하는 시를 짓자 이승휴가 이를 차운한 바 있다.⁷⁹⁾ 1273년(원종 14) 정월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장파 관료들의 농성에 연루되어 죄를 입었는데, 이때 좌승선 홍자번과 승제였던 박항의 변호로 어느 정도 죄가 무마될 수 있었다.⁸⁰⁾ 이에 감사의 시를 박항에게 보내기도 했다.⁸¹⁾

75) 『동안거사집』 卷3, 행록, 「次韻金相國[諱坵]題中書省未開芍藥」.

76) 『동안거사집』 卷3, 행록, 「次韻金相國[諱坵]朝退詩」 및 「復用朝退韻 上朴承制」.

77) 후에 박항의 아들 박광정과 정가신의 딸이 혼인해 朴居實을 낳았다. 『朴居實妻元氏墓誌銘』(<https://portal.nrich.go.kr/>); 鄭遇琪 編, 『나주정씨족보』(나주, 나주정씨종회, 1935) 참조. 박항에 대해서는 김태욱, 「고려 후기 지배세력의 존재 모습: 춘천 박씨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25(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한성수, 「고려시대 朴恒의生涯와活動에 대하여」 『전북사학』 37(전주, 전북사학회, 2010) 참조.

78) 『동안거사집』 卷2, 행록, 「次白中書[諱文節]賀金祭酒[諱愷海陽公子]知貢舉詩韻奉呈」 및 「借用前韻 投朴起畚 [諱恒]」. 金愷는 金愷의 오기로, 그는 1268년(원종 9) 4월 동지공거로 지공거 柳暲와 함께 과거를 주관했다. 『고려사』 卷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원종 9년 4월. 이로 미루어 박항에게 준 시도 1268년 4월 무렵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79) 『동안거사집』 卷3, 행록, 「次韻金相國[諱坵]題中書省未開芍藥」.

80) 『동안거사집』 卷4, 행록, 「賓王錄并序」.

81) 『동안거사집』 卷3, 행록, 「上朴承制并序」 “僕夙契金蘭 服勤螢雪 常蒙訓練 虛名乃著 由是求官 但期館翰 餘無望也 越丁卯六月 偶補三官 心甚不樂 棄去舊學 強顏從事 有年數矣 今癸酉正月 都監諸員 將詣兩府 成行已出 權務已下 許多輩落後聚頭而語 僕私怪其然 且立留待 詰其所以 乃曰 吾屬當遷不拜 不若罷休 將呈辭狀去也 僕以多方言說力止 而未奪其志 爾後宰樞所劾其不遜之罪 僕返坐其事 事在易明 然且否者 蓋君子不以惡名與人故也 閣下豈不知之耶 注云 事具在賓王錄序中 謹課成一篇奉呈”.

또 정흥의 축하시를 차운해 박항에게 보냈고,⁸²⁾ 또 이 시의 운에 따라 한림원 3학사에게 시를 보냈는데, 그중에 대제 김주정과 정흥이 포함되어 있다.⁸³⁾ 상서 金琬이 박항에게 준 시를 또 차운하기도 했다.⁸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승휴는 동년인 시어 金孝績·시랑 金孝巨·소경 張翼·국학박사 李泌·녹사 金城 등과 함께 역시 동년인 사간 崔守璜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들은 1245년(고종 32) 5월 좌승선 劉弘이 관장한 국자감시에 급제했다.⁸⁵⁾ 이때 박항을 초청했는데 그는 정흥과 함께 왔고, 사간 高密도 우연히 동석하여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⁸⁶⁾ 홍자번과의 교유는 1270년(원종 11) 국왕이 원에서 돌아오면서 개경 환도를 단행해 승선으로 제수된 그가 經濟에 힘을 쓰던 중 우연히 밭에서 넓고 반지르르한 바위를 얻어 서실에 두고 침상으로 사용하곤 하던 石床을 이승휴에게 보여주자 이에 대한 시를 지어준 것에서 확인된다.⁸⁷⁾ 그는 1273년 인사 불만에 대한 죄를 물었을 때 이승휴를 변호한 바 있다.

한편 이승휴는 1273년 3월 세조 쿠빌라이의 황후와 황태자 책봉을 축하하는 하진사 일행에 포함되어 서장관으로 원에 다녀온 바 있다. 이때 정사는 순안후 惇이었고, 일연의 단월로 확인되는 송송례가 지추밀원사 어사대부 상장군으로

82) 『동안거사집』 卷3, 행록, 「復用鄭直講賀詩韻 上朴承制」, 정가신은 이장용이 卿大夫를 모아 시회를 結社한다는 소식을 듣고 長句를 지어 보내기도 했다. 『동문선』 卷14, 칠언 율시, 「興以聞樂軒懶齋二相國與諸卿大夫作詩結社子亦喜幸偶成長句寄呈」.

83) 『동안거사집』 卷3, 행록, 復用前韻上竹堂三學士, 「李侍郎[諱仁成]·「金侍制[諱周鼎]·「鄭直講[諱興]」.

84) 『동안거사집』 卷3, 행록, 「次韻金尙書琬上朴承制」.

85) 『고려사』 卷74, 지28, 선거2, 과목2, 국자시 정원, 고종 32년 5월.

86) 『동안거사집』 卷3, 행록, 「和朴承制詩并序」 “與同年金侍御孝績 金侍郎孝巨 張少卿翼 李國博泌 金錄事璪 同會于崔司諫守璜宅 邀朴承制 承制携鄭直講興見臨 高司諫密偶至 歡然粲然 抵暮而罷 其明日承制作詩爲謝 謹次韻奉呈”.

87) 『동안거사집』 卷3, 행록, 「次韻丹陽洪承制[諱子蕃]石床歌并序」 “庚午夏月 陛下還自上朝 克復松都 時公新拜承宣 銳意於經濟 乃於荊棘中偶得廣四尺長六尺許大石一片 清滑可愛 輒安於書室窓東 常寢臥其上 乃作石床歌示之 謹次韻奉呈”.

부사를 맡았고, 내시 호부원의 염승익도 사신단의 일원으로 함께 파견되었다.⁸⁸⁾ 이때 이승휴는 송송례의 시에 차운하며 그가 1270년(원종 11) 임유무를 처단한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내세우지 않았던 일을 회고한 바 있고,⁸⁹⁾ 이후 두 차례 더 송송례의 시를 차운했다.⁹⁰⁾

오한경은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으나, 1295년(충렬왕 21) 진양부에서 초간된 『제왕운기』를 받아 본 이승휴가 진양목백인 상서 李愐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연전에 한양 오학사가 강릉도관찰사로 나와 두 번이나 방문하여 4~5일간을 어울리게 되었다”는 데서 추측이 가능하다.⁹¹⁾ 여기에서 한양 오학사를 오한경의 동생인 오양우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1261년(원종 2) 과거에 급제한 오한경의 초직이 남정사록이었다는 점에서⁹²⁾ 이승휴를 찾은 한양 오학사는 오한경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가 강릉도관찰사를 역임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때는 이승휴가 『제왕운기』 초고본을 국왕에게 봉진한 1287년부터 開刊되는 1295년 사이, 구체적으로는 『제왕운기』가 간행되기 年前이라는 서술로 미루어 1290년 이후일 것이다. 오한경이 일연과 교유한 때를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그를 중심으로 일연과 이승휴, 원에 보내려고 『금경록(국사)』을 편찬한 오양우까지⁹³⁾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휴의 교유망을 「보각국사비」에서의 경사대부와 비교할 때, 중첩된 교유

88) 『동안거사집』 卷4, 행록, 「賓王錄并序」.

89) 『동안거사집』 卷4, 빈왕록, 「十二日金岩途中 次宋相國詩韻[庚午年上自上國還朝 時林衍子惟茂據花都逆命 公舉義誅之 出都迎駕 復政公室 而罔以寵居 蓋公之功業 無間然矣]」.

90) 『동안거사집』 卷4, 행록, 빈왕록, 「七月初九日 行自斜路 得達瀋州 又爲大水所隔留數日 謹次宋相國詩韻」 및 「是月十六日 得到渥頭站 記途中凡所經由者 謹賦古調一篇 寄本朝雞林承制諱恒 兼呈侍從宋相國·李尙書·鄭侍郎·廉少卿」. 여기서의 廉少卿은 염승익을 가리킨다.

91) 『동안거사집』, 잡저, 「寄晉陽牧伯李尙書諱愐書」.

92) 『고려사』 卷109, 列傳22, 吳訥.

93) 『고려사』 卷30, 충렬왕 12년 11월 丁丑(15일). 김성환, 앞 글(2024(b) 및 2025(a)) 참조.

망이 확인되는 사람은 12명이다. 이장용·최영·원부·박항·김구·정가신·김주정·홍자번·송송례·염승익·민훤·오한경이 그들이다.⁹⁴⁾ 1264년 몽골의 국왕 친조 요구에 일연과 친분이 깊었던 이장용은⁹⁵⁾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로 이를 추진했다. 몽골과의 강화가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몽골을 추종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쿠빌라이에게조차 화술의 달인이라는 뜻인 ‘아만메르젠(阿蠻滅兒里干)’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가 개경 환도에 반대하던 김준 정권을 몽골이 2개의 도읍을 둔 것에 따라 여름에는 松京, 겨울에는 강도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 개경에 출배도감을 설치한 것도⁹⁶⁾ 마찬가지다. 그는 앞서 고려가 요와 금을 北朝로 불렀듯이 원을 北庭으로 여겼다.⁹⁷⁾

원종 때 몽골(원)에 보내는 詞命을 책임졌던 김구의 경우에는 몽골(원)에 대한 이원적인 인식이 보다 분명하다. 몽골의 침입에 도륙되었던 철주를 지나면서

94) 이승휴는 直史館 李仁挺이 任景肅을 애도한 시를 차운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그의 조카인 任翊과도 교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안거사집』 卷3, 行錄, 「次韻李史館仁挺哭任大師[諱景肅歷仕五朝年九十三]」.

95) 이장용은 불교에 깊이 1264년 이전에 이미 私第로 절을 지었고, 『禪家宗派圖』를 저술했으며,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문도 3천을 모아 90일간 강의한 華嚴大典의 요지를 문하인 智通이 2권으로 정리한 『華嚴錐洞記』를 윤색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추동기』를 언급하고 있어 불교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동안거사집』 卷1, 行錄, 求官詩并序, 「慶源李侍中[公諱臧用]」, “…朱門捨作青蓮宇 霞納招來碧眼胡[時公捨私第爲寺] 目擊柏庭傳祖髓 手調金鼎養民膚…”; 『고려사』 卷102, 列傳15, 이장용 “…又喜浮屠書 嘗著禪家宗派圖 潤色華嚴錐洞記 遺命火葬…”; 『삼국유사』 卷5, 효선9, 「眞定師孝善雙美」.

96) 『고려사』 卷102, 列傳15, 이장용.

97) 『동문선』 卷28, 책, 「王太子玉冊文」(이장용) “眷言頃幸於北庭 適值遽處於中制 輿情攸屬 酒膺監國之權 聘介方來 允得迓賓之美 人皆悅止 朕甚嘉焉”. 후일 일연의 단월로 고종 말 몽골 사신단에 서장관으로 파견된 김주정의 묘지명에서도 몽골은 北朝로 기록되었다. 「金周鼎墓誌銘」, “…丁巳調富城縣尉 ■巡問侯韓就 以公政里爲最而舉之 權補都兵馬錄事 俄以北朝行李書狀官 使還陳事 時之執政海陽公器之…”. 그런데 몽골이 송을 멸망시키고 대일통을 이룬 大元이 되었을 때 그 인식은 앞서 西朝로 인식되었던 송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는 北兵이 침입했을 때 굳게 지켰으나 막을 수 없게 되자 창고에 불을 지르고 처자식과 함께 불에 타 죽은 鐵州倅 이광정을 회고하면서 몽골군을 ‘성난 도둑떼(怒寇)’ 또는 ‘오랑캐(虜)’로 읊었고,⁹⁸⁾ 몽골에 다녀오면서 도착한 邊境은 ‘오랑캐 땅(胡地)’이었다고⁹⁹⁾ 했다. 1240년(고종 27)에는 사신으로 몽골에 다녀오면서 서경에 이르러서는 “슬픈 노래를 강산을 조상하려 하나니 아마도 땅의 신령이 있어 가만히 눈물을 흘릴 것”이라면서 몽골군의 구락에 황폐해진 모습을 읊었다.¹⁰⁰⁾ 그러나 몽골이 대원으로 국호를 정하자 그 「賀表」에서는 원이 삼대 이전과 같이 덕을 의논하여 국호를 제정했다고 축하했고,¹⁰¹⁾ 지원으로 연호를 세운 것을 축하하면서는 “三韓億載의 충성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¹⁰²⁾ 김구의 「하표」가 원을 의식한 외교적 언사라고 하더라도¹⁰³⁾ 앞선 시와 비교해서 이원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춘추 향리 출신인 박항의 경우에는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해 강도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이 고향을 함락시킬 때 부모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다. 성 아래 산같이 쌓인 시체를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부모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 후에 어머니가 포로가 되어 연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으로 갔을 때 두 차례나 가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원종 때부터 충렬왕 초까지

98) 『동인지문오첩』 卷8, 「過鐵州」[昔年北兵來寇 州倅李光禎固守 力盡知不免 遂焚官倉 領妻子焚火而死](金垵) “當年怒寇闌塞門 四十餘城如燎原 倚山孤堞當虜蹊 萬軍鼓吻期一吞…”.

99) 『동인지문오첩』 卷8, 「出塞」(金垵) “峽中盡日踏黃沙 橫擁氍毹裘雨過 山盡已疑胡地盡 地多還恐朔天多”.

100) 『동문선』 卷6, 칠언고시, 「庚子歲朝蒙古過西京」. 그는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같은 책 卷14, 칠언율시, 「上晉陽公」.

101) 『원사』 卷7, 지원 8년 11월 乙亥(15일); 『동문선』 卷32, 표전, 「賀表」(金垵).

102) 『동문선』 卷32, 표전, 「賀立元表」(金垵).

103) 金垵의 대몽골 詞命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정동훈, 「고려가 몽골제국에 바라는 것: 김구(金垵)의 외교문서에 표현된 원종 대 양국 관계의 재구성」 『한국사연구』 199(서울, 한국사연구회, 2022); 고명수, 「13세기 金垵의 몽골 인식」 『전북사학』 73(전주, 전북사학회, 2025) 참조.

수차례에 걸쳐 몽골(원)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그곳에 있는 고려 백성을 추쇄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의 동정 준비와 관련해서는 대책과 군사기밀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¹⁰⁴⁾ 그의 몽골(원)에 대한 현실인식 또한 이원적이지 않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¹⁰⁵⁾

특히 이승휴는 동갑 또는 동년배였던 정가신·박항·김주정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1273년 서장관으로 원에 가는 도중에는 경유한 곳들을 읊은 고시를 박항에게 보낸 것에서 확인되듯이 그와의 교유가 더욱 친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⁰⁶⁾ 그들은 몽골(원)과의 실질적인 사대관계 속에 국왕의 친조와 개경 환도 등 대내외의 정세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자국의 국체와 정체성을 어떻게 존속할지에 대한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연에게도 일정하게 공유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찬술되었다. 그들은 불교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승려와 관료라는 점에서 대별되는 요소를 가지지만, 그것만으

104) 『고려사』 卷106, 列傳19, 박항.

105) 다음의 시에서 이 같은 심정을 짐작하게 한다. 『동문선』 卷14, 칠언율시, 「北京路上」
 “一色平蕪觸處同 四時無日不狂風 淺山白日能飛雨 古塞黃沙忽放虹 地隔四天天共遠 堠磨雙隻路何窮 漢家信美非吾土 歸夢時時落海東”. 1269년(원종 10)~1270년 몽골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것으로 짐작되는 이 시에서 박항은 몽골을 漢家로, 고려를 吾土 또는 海東으로 구분해 몽골을 사대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곳은 “하루라도 狂風이 불지 않는 날이 없고 黃砂 속에서도 무지개가 툭 튀어나오는” 낯선 곳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이 시가 사행길에서의 불안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내면에는 원 간섭이 직전 사대 대상인 몽골에 대한 이해 상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몽골에 가는 과정까지는 그랬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서 박항의 몽골에 관한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승휴도 원에서 돌아오는 사행길에서 漢帝(몽골황제)가 내린 한 줄기의 광채로 華夷가 하나로 되었다고 읊었다. 『동안거사집』 卷4, 행록, 寶王錄并序, 「是月二十五日 還及鴨綠江 篇用宋相國閣下 兼呈諸 漢帝臨軒五賜厄 一行光彩耀華夷 十分御醞醺金骨 四襲仙衣護玉肥 闊野攢蹄催送客 好山供眼勸題詩 已將利見還雲闕 黃色應添八彩眉”.

106) 『동안거사집』 卷4, 행록, 빈왕록, 「是月十六日 得到渥頭站 記途中凡所經由者 謹賦古調一篇 寄本朝雞林承制諱恒 兼呈侍從宋相國·李尙書·鄭侍郎·廉少卿」.

로 그들의 역사 인식이 확연하게 달랐다고 논의하기는 어렵다. 일연과 이승휴는 모두 실질적인 사대의 대상이었던 원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려 사회의 제도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당시의 현실 인식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¹⁰⁷⁾ 이것은 그들이 교유했던 인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연과 교유했던 단월들, 이승휴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공유했던 현실 인식은 관제와 복식 등 사대관계에 맞는 속국으로서의 개편과 征東 등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요구에 고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제국을 사대하면서도 독립국으로서의 고려가 존속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시기 당대사 편찬의 목적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찬술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불개토폰을 약속한 쿠빌라이의 뜻은 당대나 이후 고려의 역사편찬에 일정하게 반영되어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당대사로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찬술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삼국사기』와 보합의 관계를 지닌 한국고대사의 기본사료이다. 최근에는 찬자부터 수록된 자료의 구체적인 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두 사서가 한국사 연구에서 지니는 위상과 관련이 있다. 사학사의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각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 간섭기를 포함한 고려 후기 역사편찬의 유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일연과 이승휴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현실 인식을 공유했는지를 검토하

107) 일연과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천태종의 천책(1206~1293(?)), 수선사의 충지(1226~1293) 등도 마찬가지였다. 허흥식, 『眞靜國師와 湖山錄』(서울, 민족사, 1995); 진성규, 『圓鑑錄을 통해서 본 圓鑑國師 冲止의 國家觀』 『역사학보』 94·95(서울, 역사학회, 1982).

였다.

일연이 속세에서 교유한 인물들은 「보각국사비」의 음기에 受法乳卿士大夫라고 하여 39명의 명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교유관계가 확인되는 인물은 18명으로, 1261년(원종 2) 국왕의 명으로 강도 선월사에 주석하고 1263년 이후 1269년까지 오어사와 인흥사를 오가며 교유했던 사람들과 1281년(충렬왕 7) 역시 국왕의 명으로 경주 행재소에서 국왕을 만난 후 1283년 국존에 책봉되고 이듬해 하산하여 인각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교유했던 사람들이다. 전자에는 이장용·송송례·김구·박항·이응소·박송비·장일·최영 등이 있고, 후자에는 정가신·염승익·김주정·나유·민훤·김균·김용검 등이 있다. 국왕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던 문신과 무신, 특히 충렬왕 대의 경우에는 비척지는 물론 측근 폐행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일연이 원종과 충렬왕의 강력한 지원 아래 불교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최대의 단월은 원종과 충렬왕이었다.

이승휴의 『동안거사집』에서는 시와 편지 등을 통해 그가 교유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연의 단월로 확인되는 사람은 12명으로, 이장용·최영·원부·박항·김구·정가신·김주정·홍자번·송송례·염승익·민훤·오한경 등이 그들이다. 이승휴도 이른 시기부터 은문인 이장용·유경 등과 교유한 일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세대편년절요』·『본조편년강목』을 편찬한 민지는 칙명으로 「보각국사비」를 지어 교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몽골의 침구와 피해를 깊이 자각했면서도 강화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실질적인 사대관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원의 제국 통치를 칭송하고 정동에 대한 준비에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에 대한 그들의 현실 인식은 이원적이었는데, 그것은 강력한 외압 속에서 고려의 국체와 정체성을 어떻게 존속시키고 자존의식을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중에서 이장용·김구·원부·임익·정가신·주열·김주정·장일·최유엄·오한경 등은 史館에서 역사편찬에 참여하거나 책임져 그들의 현실 인식이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

은 일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의 상고사를 다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찬자가 불교 승려와 유교 관료라는 측면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제도권에서 활동하며 충렬왕 때 원 제국의 실질적인 요구와 통제에 대응하려는 현실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찬술한 사서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當代史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투고일자: 2025.04.25. 심사일자: 2025.05.01. 게재확정일자: 2025.06.14.)

주제어 : 一然, 이승휴, 「보각국사비」의 受法乳卿士大夫, 『동안거사집』, 현실인식, 고려의 정체성

Keywords : Ilyeon, Yi Seonghyu, Ilyeon's Associations, Reality Perception, Goryeo's Identity

〈표〉 『보각국사비』의 受乳卿士大夫

관품	관직 및 성명	관품	관직 및 성명
1품	門下侍中 判翰林院事 李藏用	3품	判秘書 寶文署學士 貢文伯
	僉議中贊 上將軍 洪子藩		
	僉議中贊 判典理事 元傳		
	僉議中贊 上將軍 宋松禮		
2품	僉議贊成 修文殿大學士 任翊		
	僉議贊成事 修文殿大學士 上將軍 鄭可臣		
	門下侍郎平章事 寶文閣大學士 金坵		
	僉議贊成事 集賢殿大學士 朴恒		
	大匡 僉議贊成事 上將軍 廉承益		
	知僉議侍郎贊成事 金璉		
	參知政事 上將軍 李應韶		
	參知政事 上將軍 朴松庇		
	知僉議事 大學士 上將軍 金周鼎		上將軍 吳睿
	知僉議事 寶文署大學士 張鎰		上將軍 鄭守祺
	知僉議事 寶文署大學士 朱悅		上將軍 李英柱
	知密直事 左常侍 上將軍 崔有滄		寶文署學士 金砥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朴之亮		國子祭酒 知制誥 崔寧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羅裕		衛尉尹 崔資奕
	副知密直司 監察大夫 閔萱		秘書尹 知制誥 吳漢卿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金顗		司宰尹 柳琚
	副知密直司 上將軍 李德孫	4품 이하	金吾衛將軍 朴■
			典理摠郎 金元具
			近侍 中郎將 金龍劍
			郎將 崔有■
			佐郎 李世祺
			祗候 尹奕
			博士 金元祥
			翰林 金■
			朝奉郎 金台■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담암일집』
 『동문선』
 『동안거사집』
 『동인지문오칠』
 『삼국유사』
 『원사』
 『익재난고』
 『竹泉集』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七」, 「金周鼎墓誌銘」, 「金深墓誌銘」, 「梁宅椿墓誌銘」, 「元傳墓誌銘」(이상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朴居實妻元氏墓誌銘」, 「松廣寺普照國師碑」(이상 <https://portal.nrich.go.kr/>)

2. 일반단행본

김성환,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 참성초에서 마니산산천제로』(서울, 민속원, 2021).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Ⅰ): 고려시대편: 개정증보』(파주, 경인문화사, 2014).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서울, 신서원, 1998).
 채상식,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7).
 하정용, 『삼국유사 사료비판』(서울, 민족사, 2007).
 한기문, 『일연과 그의 시대』(서울, 역락, 2020).
 허흥식, 『眞靜國師와 湖山錄』(서울, 민족사, 1995).

3. 단행본 내 논문

- 김상헌 외, 『역사학』 『신편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박영제, 『불교사상의 변화와 동향』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채상식, 『일연과 『삼국유사』』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4. 논문

- 고명수, 「13세기 金堦의 몽골 인식」 『전북사학』 73(전주, 전북사학회, 2025).
- 김성이, 「민지의 사유와 문학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성환, 「목은 이색(1328~1396)의 형제문화론적 화이관과 삼한사(三韓史) 인식」 『동방학지』 201(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 _____,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편찬」 『동북아역사논총』 81(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 _____, 「13세기 말~14세기 중반 원과의 관계에서 추진된 고려의 역사편찬」 『동북아역사논총』 86(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4(a)).
- _____, 「고려 후기 鄭可扈(1224~1298)의 『千秋金鏡錄』 찬술과 역사 논쟁」 『대동문화연구』 128(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4(b)).
- _____, 「고려 후기 閔漬(1248~1326)의 역사 논쟁과 『世代編年節要』 편찬」 『한국사학보』 99(서울, 고려사학회, 2025(a)).
- _____, 「무인집권기 시평(時評)을 통해 본 실록 편찬의 경향」 『포은학연구』 35(용인, 포은학회, 2025(b)).
- 김태욱, 「고려 후기 지배세력의 존재 모습-춘천박씨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25(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 남동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9).
- 마중락, 「牧隱 李穡의生涯와 歷史意識」 『진단학보』 102(서울, 진단학회, 2006).
- 민현구, 「閔漬와 李齊賢: 李齊賢 所撰 『閔漬墓誌銘』의 紹介 檢討를 중심으로」 『斗溪李丙巖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서울, 지식산업사, 1987).
- _____, 「閔漬」 『한국사시민강좌』 19(서울, 일조각, 1996).
- 박종기, 「이색의 당대사(當代史) 인식과 인간관-묘지명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6(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7).
- _____,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 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11).

- _____, 「원 간섭기 金就礪像의 형성과 當代史 연구」 『한국사상사학』 4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2).
- 변동명, 「鄭可臣과 閔漬의 史書編纂活動과 그 傾向」 『역사학보』 130(서울, 역사학회, 1991).
- 윤경진, 「고려후기 先生案 자료를 통해 본 外官制의 변화」 『국사관논총』 10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윤기엽, 「元 간섭 초기 고려 禪宗界의 변화와 사원 동향: 주요 선종 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12(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2).
- 이익주,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창국, 「元 간섭기 閔漬의 현실인식: 불교기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4(경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 정동훈, 「고려가 몽골제국에 바라는 것: 김구(金丘)의 외교문서에 표현된 원종 대 양국 관계의 재구성」 『한국사연구』 199(서울, 한국사연구회, 2022).
- 진성규, 「圓鑑錄을 통해서 본 圓鑑國師 冲止의 國家觀」 『역사학보』 94·95(서울, 역사학회, 1982).
- 차광호, 「삼국유사에서의 신이(神異) 의미와 저술주체」 『사학지』 37(용인, 단국사학회, 2005).
- 최병헌, 「定慧結社의 趣旨와 創立過程」 『보조사상』 5·6(서울, 보조사상연구회, 1992).
- 최봉준, 「李齊賢의 성리학적 역사관과 전통문화인식」 『韓國思想史學』 31(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08).
- 탁봉심, 「李齊賢의 歷史觀: 그의 '史贊'을 中心으로」 『이화사학연구』 17·18(서울, 이화사학연구소, 1998).
- 한누리, 「이제현의 현실 인식 및 외교 논리 검토: 『익재난고』의 「사찬」과 상서(上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8(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22).
- 한성수, 「고려시대 朴恒의 生涯와 活動에 대하여」 『전북사학』 37(전주, 전북사학회, 2010).

[Abstract]

Friendship and Reality Perception of Ilyeon(1206~1289) and Yi Seunghyu(1224~1300)

Kim, Sunghwan
(Chungbuk National Univ.)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s confirmed in *Samguk-yusa* and *Jewang-ungi* is in need of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later Goryeo dynasty, which includes the Yuan Interference Period.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preliminary review of what kind of reality perception was shared by those who built a network with Ilyeon and Yi Seunghyu, and how their perception was reflected in the historical compilation.

In a list of 39 names recorded in an engraving on the back of the Bogak-guksa's monument, Ilyeon's companions were named as scholars having received instruction from him. In the collection *Dongan-geosa-jip* through poetry, letters, and other material, one can confirm the contemporaries of Yi Seunghyu, along with Ilyeon's benefactors, 12 people including Yi Jangyong and others. Also, from early on, Yi Seunghyu would have known of Ilyeon's associations with Yi Jangyong, Ryu Gyeong, and other individuals thought to be indebted to him. Likewise, Ilyeon maintained a friendship with Min Ji who had constructed the Bogak-guksa's monument by royal order.

This presented a problem as how to preserve and continue a sense of national self-esteem and Goryeo identity when confronted by such powerful foreign pressure. Within this milieu, many people took part in the process of compiling historical chronicles in the offices of historiographers or assum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is task, and scholars can confirm the reflection of these scholars' perception of reality by their outlook on history. Ilyeon too worked to preserve this historical consciousness.